

2023년 중부대학교 연구과제

중부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 연구책임자 : 안**(중부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박**(중부대학교 교수)

백**(중부대학교 교수)

김**(중부대학교 교수)

김**(**고등학교 교사)

2023. 03. 25.



중 부 대 학 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목 차

I. 서 론	1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분석	5
I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11
IV.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6
V.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 결과 분석	17
VI. 결과 요약 및 2024학년도 입학전형 반영 개선 과제	27
VII. 부록	31
1. 중부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31
2.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 해당사항 없음	33
3. ‘중부대학교 선행교육(선행학습) 및 사교육 영향 조사’ 설문지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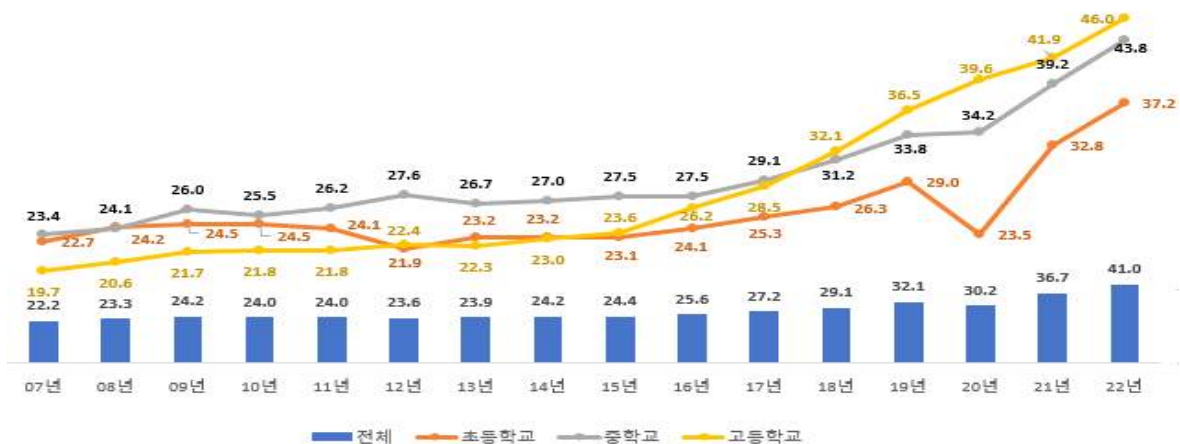
I. 서론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3년 3월 7일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021년 23.4조 원에 이어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고 2022년 5월에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한국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문제는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학벌위주의 사회 풍토와 경쟁 위주의 대입정책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와 문재인정부 전반기의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추세를 보면 2016년에는 10.9% 증가, 2017년에는 8.4%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2.8%가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무려 13.6%가 증가하였다(교육부, 2016; 2017; 2018; 2019; 2020).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5.9% 상승에 그쳤다(교육부, 2021).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21년에는 6.0% 증가, 2022년에도 무려 9.7%가 증가하였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림 1-1]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자료: 교육부(2023).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2020년에는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8만 8천원, 중학교 32만 8천원, 초등학교 22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고등학교(5.9%)는 증가하였으

나, 초등학교(-23.7%), 중학교(-3.4%)는 감소하였다. 참여학생은 고등학교 64만원, 중학교 49만 2천원, 초등학교 31만 8천원이며, 전년대비 초등학교(-9.0%)는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5.2%), 중학교(2.5%)는 증가하였다(교육부, 2021).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림 I-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자료: 교육부(2022).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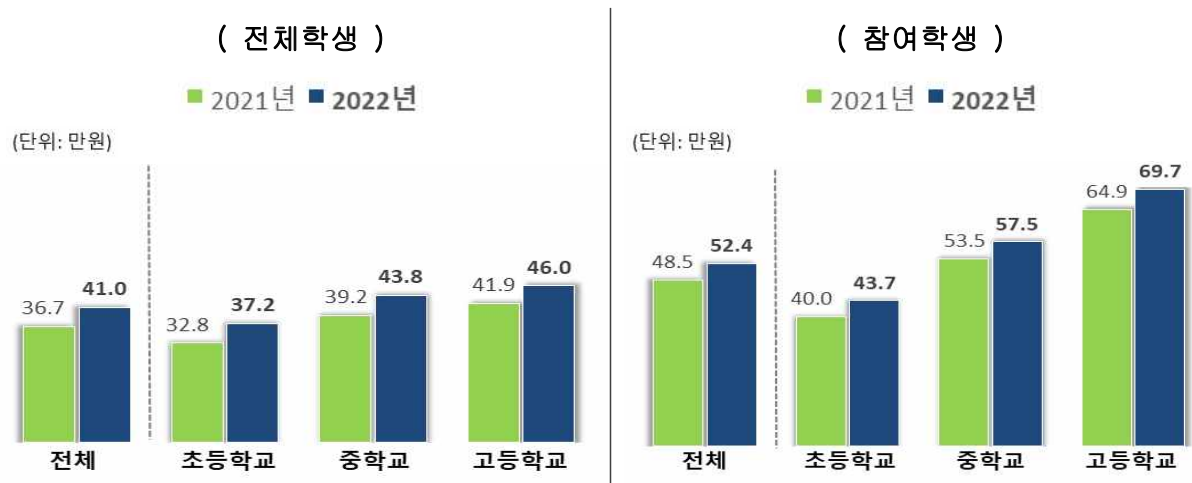
2021년에는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원으로 전년도 약 19조 4천억원에 비해 무려 4조 1천억원(21.0%)이 증가하였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44만 5천원, 참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65만 5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전체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32만 8천원(9.3만원, 39.4% ↑), 중학교 39만 2천원(5만원, 14.6% ↑), 고등학교 41만 9천원(2.4만원, 6.0% ↑)였다. 참여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0만원(6.2만원, 18.5% ↑), 중학교 53만 5천원(2.8만원, 5.5% ↑), 고등학교 64만 9천원(0.7만원, 1.0% ↑)였다(교육부, 2022).



[그림 I-3]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 자료: 교육부(2022).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7만 원에서 2022년 41만 원으로 11.8% 증가하였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 2021년 48.5만 원에서 2022년 52.4만 원으로 7.9% 상승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9조 원, 중학교가 7.1조 원, 고등학교가 7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1%, 11.6%, 6.5% 상승하였다(교육부, 2023).



[그림 1-4]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자료: 교육부(2023).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이렇게 사교육비 통계는 예년에 비하여 매우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부모들 사이에 학생 자녀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표 1-1> 2015년 이후 연도별 고등학생(전체)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등	논술	예체능 및 기타	전체 (만원)
2022년	6.5	12.4	16.0	3.2	0.2	0.6	6.1	52.4
2021년	5.7	11.5	14.9	2.7	0.4	0.5	5.4	41.9
2020년	4.8	10.7	14.2	2.5	0.4	0.4	5.3	38.3
2019년	4.3	9.9	13.1	2.0	0.4	0.6	5.5	36.5
2018년	3.5	8.7	11.8	1.5	0.3	0.4	5.2	32.1
2017년	2.7	7.7	10.9	1.2	0.3	0.7	4.5	28.4
2016년	2.3	7.7	10.4	1.1	0.2	0.5	3.7	26.2
2015년	1.8	7.2	9.7	0.8	0.1	0.5	3.1	23.6

* 자료: 교육부(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해당 연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은 우선, 학생의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를 유발한다. 학생들은 성인의 하루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롭고 건전한 발달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은 직접적으로 학부모의 고통 증가를 가져온다. 이 지출은 단순히 소비구조를 왜곡하고 안정적인 가계 운영을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성인남녀의 출산 기피 풍조를 낳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심지어 부모의 노후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격차를 매개로 하여 사회양극화를 재생산할 수

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교육개혁이 국가가 현존하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교육상황을 검토하여 새로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대입제도 개혁 등 입학전형 정책도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을 정도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나친 사교육비 증가를 방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였다. 선행교육 금지법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해당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학생부 위주 대입전형이 공고해지며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가 무려 13.6%에 이르게 된 것이다(교육부, 2021).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5.9% 상승한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2년 3월 11일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021년 23.4조 원에 이어 또 다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부전형 위주의 대학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전체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각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지니고 있기에 매 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이 사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차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중부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중부대학교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면서도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입학전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분석

1.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입학전형 분석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입학전형은 대입전형 내용과 형식의 간소화를 통한 지원자 중심의 전형, 꿈과 끼, 열정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열린 인재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일반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20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아예 폐지하였다. 따라서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입학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실적위주전형으로만 진행되었다.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입학전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Ⅲ-1>과 같다.

<표Ⅲ-1>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전형 요약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전공(학과)	학생부	면접	실기
학생부위주 (교과)	학교생활우수자	542	-	542	· 해당 모집단위	70%	30%	-
					· 항공서비스학전공	50%	50%	-
					· 특수체육교육과	60%	-	40%
	학생부우수자	666	-	666	· 해당 모집단위	100%	-	-
	지역인재	83	-	83				
	국가보훈대상자	5	-	5				
	농어촌학생	-	36	36				
	특성화고교졸업자	-	18	18				
	기초/차상위/한부모	2	42	44				
	특수교육대상자	-	3	3				
실기/실적위주	실기우수자	385	-	385	· 해당 모집단위	30%	-	70%
					· 골프학전공	30%	70%	-
	체육특기자	8	-	8	· 해당 모집단위	학생부20%+출결10%+서류(실적)40%+면접30%		

* 출처 : 중부대학교(2022). 2023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입학전형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유형은 두 가지로 매우 단순화, 간소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위주전형이다. 2022학년도까지 시행되었던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였다.

둘째, 확대 적용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정량평가로 반영하고 있어 불공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셋째, 그 결과 여타 대학에 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한 서류·면접 사교육 등 증빙자료 사교육 등이 유발될 가능성과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었다.

넷째, 최근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논술전형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실기위주전형은 반드시 필요한 학과(전공)에 한정하여 최소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본교의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조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수시전형의 모든 전형유형에 적용되었다.

여섯째, 학생 ‘서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받지 않는다. 다만, 학생 면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면접 장소에서 간략한 자기 소개와 지원동기 등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정시(79명)보다 수시(1,691명)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방 소재 대학 신입생 선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입학정원의 대부분(95.5%)을 수시로 선발하려고 계획하였다. 다만, 수시에서 충원이 못된 선발인원은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고 있다.

여덟째, 본교는 실기위주전형 외에는 논술은 물론이거니와 적성고사 또는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홉째, 따라서 논술이나 적성고사 또는 구술고사 등의 대학별고사로 인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의 영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열째,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생부교과를 일정 비율(30%, 실기특기자는 20%) 반영하고 있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예체능 계열 지원 학생들이 교과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부대학교의 이러한 대입전형 방식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있다.

2.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정시입학전형 분석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은 내용과 형식의 간소화를 통한 지원자 중심의 전형, 꿈과 끼, 열정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열린 인재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일반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을 지향하고 있다.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정시입학전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정시모집 입학전형 요약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요소 및 전형비율	모집인원	비고
수능위주	수능우수자	수능100%	45	정원내
	사범계	수능80%+면접20%	9	
	지역인재	수능100%	5	
학생부위주	학생부우수자	학생부100%	수시이월	
실기위주	실기우수자	수능30%+실기70%	20	정원내
수능위주	농어촌학생	수능100%	수시이월	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수능100%	수시이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수능100%	수시이월	

* 출처 : 중부대학교(2022).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정시입학전형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유형은 두 가지로 간소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능위주전형(59명)과 실기위주전형(20명)이다.

둘째, 모집요강 상의 정시모집인원(79명, 수시이월 별도)이 수시모집인원(1,691명)보다 매우 적다. 다만, 수시에서 충원이 못된 선발인원은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였다.

셋째, 정시에서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실기위주전형은 최소화(50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22학년도 실기위주전형 선발인원인과 유사한 최소 수준이다.

넷째, 정시모집인원(79명) 중에서도 수능위주전형 모집인원(59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선발인원에도 해당된다.

다섯째, 정시입학전형에서는 면접은 사범계 10명 선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따라서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이 여타 대학에 비하여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추가로 유발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2023학년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분석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논술 등 필답고사로 인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유발효과는 전혀 없다.

〈표 II-3〉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전형의 논술 등 필답고사 대상 분석

대학별고사 유형	전형명	계열	모집요강에 제시한 출제 범위(과목명)	관리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해당 사항 전혀 없음															
면접· 구술고사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면접은 교과에 대한 면접·구술고사 성격이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과정에서 나타나는 진로열정, 인성과 가치관등을 확인하는 인성 및 진로 관련 면접문항으로서 교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될 수 없다.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면접에서의 면접 문항은 아래와 같다.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정시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인성면접을 실시하기에 교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면접·구술고사 문항카드도 중부대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면접이 교과에 대한 면접·구술고사가 아니라, 인성 및 진로 관련 면접문항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부교과전형의 인성면접문항을 제시한다.

〈표 II -4〉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공개·비공개 문항

0000학부		
공개 문항		선택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선택
2	행정안전부내에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선택
3	중부대학교의 인재상을 알고 있는가? 제시되는 세가지 인재상에 대해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어벤저스의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공공안전과 국민봉사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5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일선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잡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기서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의 임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비공개 문항	0000학전공	선택
1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학과와 활동을 확인한 적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이야기 해 보세요.	오전
2	대학생활에 있어 본인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학교나 학과에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오후
3	0000학부의 경우, 다른 학부에 비해 옷차림이나 예절 등에 대한 규제가 있는 편입니다. 대학교의 기수 문화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전
4	중부대학교의 인재상을 알고 있는가? 제시되는 세가지 인재상에 대해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AI 등을 이용한 범죄예측기술의 발달 등이 경찰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경찰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후

비공개 문항	0000전공	선택
1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광화문 등 도심집회를 차단하면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잉대응'이라는 논란도 있다. 집회의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안전과의 관계 문제이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오후
2	코로나 팬더믹의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팬더믹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찰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오전
3	학생의 롤 모델(role model)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오전
4	법과 도덕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오후
5	집회의 자유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갈등관계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비공개 문항		0000학전공	선택
1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일원체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러한 정책이 경찰과 시민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오전
2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AI 등을 이용한 범죄예측기술의 발달 등이 경찰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경찰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3	경찰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경찰백서에서 '인권'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와 인권의 관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주십시오.		오전
4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외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후
5	본인은 중요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30대 남성이 할머니를 구타하고 지갑을 절도하려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후

비공개 문항		000000학전공	선택
1	탐정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오전
2	000000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		오후
3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4	최근 탐정업 입법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탐정업이 입법화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전
5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후

Ⅲ.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을 교육부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양식에 따라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1〉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자체 점검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결과
대학별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해당 무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해당 무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 중부대학교에서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음.

1. 중부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자체 규정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제1조(목적)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전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②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①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현직 고교 교사, 교직원 등) 4인 내외를 포함하여 총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입학홍보처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5.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본교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학처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입학홍보처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한다.(개정 2020.5.8.)

제5조(방법 및 절차)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한다.

2.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이나 학생부·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형태

의 경우에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3. 교과 지식을 직접 묻는 면접은 아니라도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문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는 면접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설문조사 또는 문항 평가,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5. 영향평가 결과 본교의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적용의 배제) 입학전형의 내용이 예체능 실기고사 또는 국가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중부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인 입학홍보처장을 비롯한 교수와 연구원 및 외부의 교육연구기관 연구사를 포함하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빙하기 위하여 외부인사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구성 내용을 <표Ⅳ-2>과 같이 제시하였다. 외부인사인 현직 교사는 세종고등학교 문민식 교사이다.

<표Ⅲ-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위촉기간 : 2022.03.01 ~ 2023.02.28.)

위원장	입학홍보처	박**	입학홍보처장
위 원	중등특수교육과	안**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전공 (대입제도 연구 전문가)
위 원	학생성장교양학부	김**	평생교육학 전공
위 원	교직과	백**	교육상담심리학 전공
위 원	**고등학교	김**	교사
간 사	입학과	담당자	

3.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준비(2023.2.6. - 2023.2.24)
설문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준비(입학홍보처와 위원회)

↓↓↓

2023학년도 신입생 대상 선행학습 영향평가 온라인 설문조사
(~ 2023.03.12. 입학홍보처)

↓↓↓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제1차 회의 (2023.3.16.)
설문지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초안 검토

↓↓↓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제2차 회의 (2023.3.23.)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수정안 검토 및 최종 확정

Ⅳ.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제2장에서 전술하였듯이, 중부대학교는 입학전형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필답고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답고사로 인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유발효과는 전혀 없다. 그리고 면접문항도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주안점을 두고 출제하였다.

또한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20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아예 폐지하였다. 따라서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입학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실적위주전형으로만 진행되었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술 등 필답고사 또는 면접·구술고사가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의 면접문항 출제 시에도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유발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져온 본교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표Ⅱ-4〉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구분	면접 문항 출제 시 절차 준수 노력	고교 범위 수준 확인 노력
출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제자들이 전공분야에 대한 진로열정, 인성과 가치관, 사고력, 학업성실성 및 리더십을 확인하는 인성면접의 취지를 공유하며 재확인 면접 평가준거별로 교과 지식 내용이 아닌 고등학교 생활 경험이나 사고력과 학습 의지 위주의 면접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검토 중등 교원자격증 및 교직 경험 교수 위주 검토
출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 평가준거별로 복수의 면접 주제 선정 면접 주제별로 복수의 면접 문항 구성 각각의 면접 문항에 대한 평가 초점을 명료하게 작성 작성된 초점 구성에 대한 교수진들의 논의를 거쳐 평가 초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제 중인 면접 문항이 교과 내용보다 경험과 사고력 위주 출제 내용인지 확인 교과지식이 필요한 지필고사 성격의 면접문항 배제
출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 문항 출제 후 평가준거에 적합한 타당성 있는 문항인지 재검토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지식이 필요한 지필고사 성격의 면접문항 배제 재확인
금년도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와 동일하게 교과지식이 필요한 지필고사 성격의 면접문항은 철저히 배제하고 고교 생활 경험이나 사고력, 대학 입학 후의 학습의지 확인을 포함하여 학생이 지원한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주안점을 두고 면접 주제와 문항 출제 (〈표Ⅱ-4〉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의 면접문항 참조) 	

V.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 결과 분석

2023학년도에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중부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생 중 설문 응답자인 1,029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대입전형요소별로 사교육 유발 영향을 분석하였고, 중부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문항은 총 10개로 구성되었다. 2022학년도 문항과 달라진 점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문항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설문 문항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선행교육을 하였습니까?

타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선행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까?		
[문항14]	매우 그렇다	
	[1] 척도형선택	75명(7.29 %)
	[2] 척도형선택	155명(15.06 %)
	[3] 척도형선택	425명(41.30 %)
	[4] 척도형선택	214명(20.80 %)
	[5] 척도형선택	160명(15.55 %)
	매우 그렇지 않다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선행교육을 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22.35%만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77.65%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2.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확대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확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5]	매우 그렇다	
	[1] 척도형선택	73명(7.09 %)
	[2] 척도형선택	150명(14.58 %)
	[3] 척도형선택	436명(42.37 %)
	[4] 척도형선택	247명(24.00 %)
	[5] 척도형선택	123명(11.95 %)
	매우 그렇지 않다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확대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21.67%만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78.33%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였다.

3.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문항16]	매우 그렇다	
	[1] 척도형선택	66명(6.41 %)
	[2] 척도형선택	128명(12.44 %)
	[3] 척도형선택	341명(33.14 %)
	[4] 척도형선택	288명(27.99 %)
	[5] 척도형선택	206명(20.02 %)
	매우 그렇지 않다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18.85%만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81.15%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4.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문항17]	매우 그렇다		
	[1]	척도형선택	35명(3.40 %)
	[2]	척도형선택	114명(11.08 %)
	[3]	척도형선택	383명(37.22 %)
	[4]	척도형선택	319명(31.00 %)
	[5]	척도형선택	178명(17.30 %)
	매우 그렇지 않다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14.48%만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85.52%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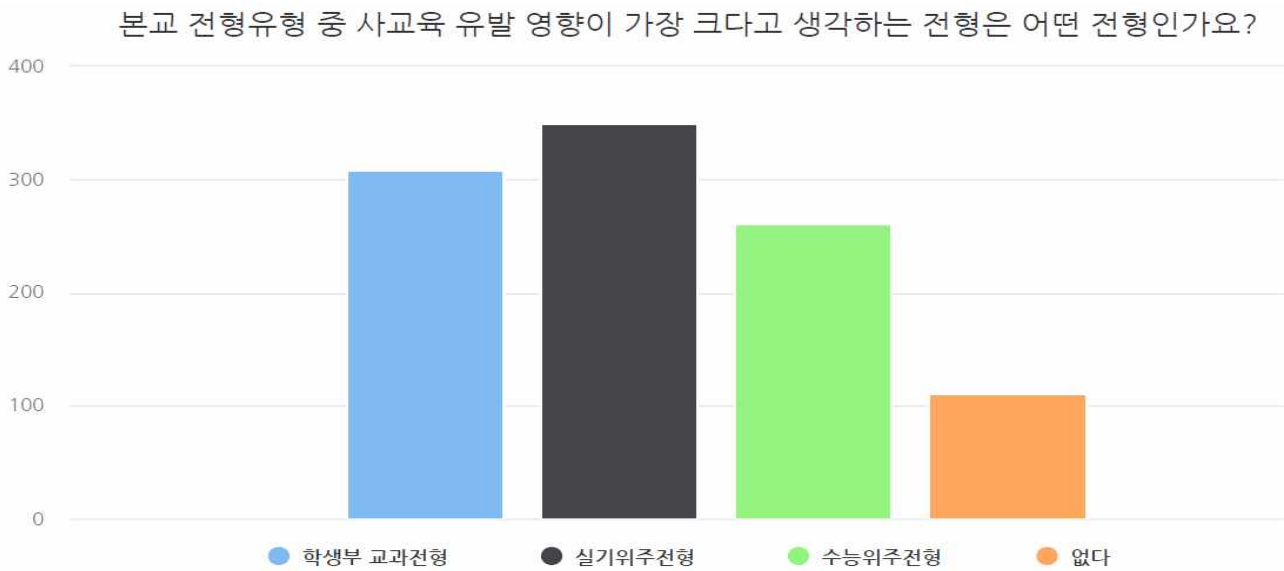
5.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본교 전형유형 중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문항19]	[1]	학생부 교과전형 308명(29.93 %)
	[2]	실기위주전형 350명(34.01 %)
	[3]	수능위주전형 261명(25.36 %)
	[4]	없다 110명(10.69 %)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부교과전형(29.93%) > 실기위주전형(34.01%) > 수능위주전형(25.36%) 순으로 답변하였다. 없다는 응답도 10.69%였다. 본교의 입학전형 유형 중 선행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전형은 수능위주전형이었다. 반면에, 본교의 입학전형 유형 중 선행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6.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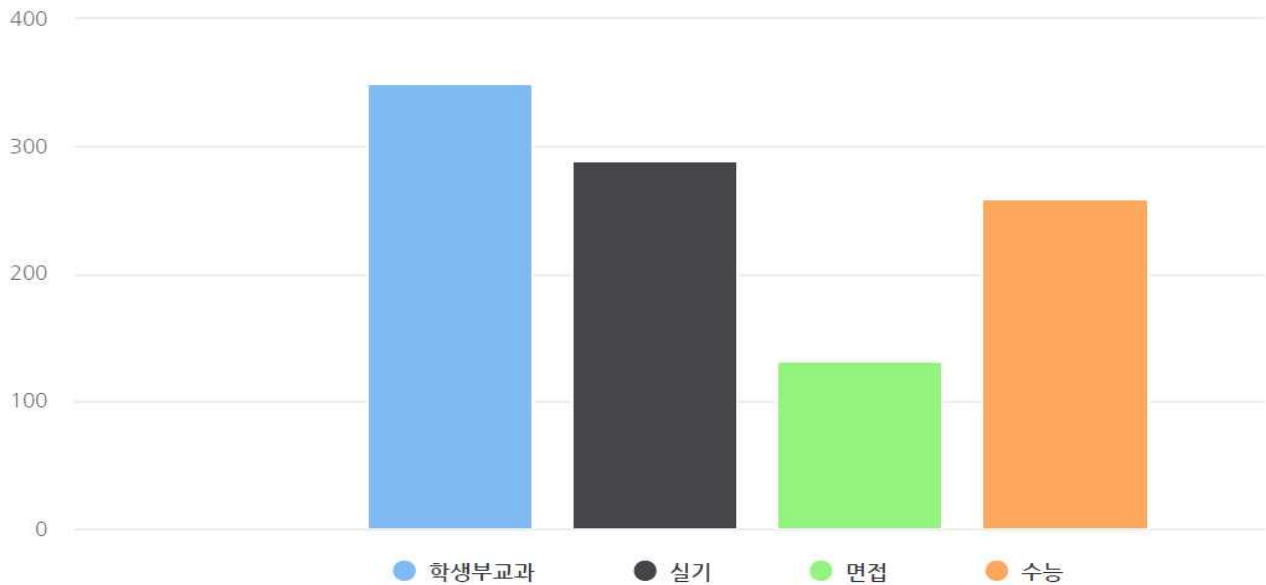


본교 전형유형 중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문항19]	[1]	학생부 교과전형 308명(29.93 %)
	[2]	실기위주전형 350명(34.01 %)
	[3]	수능위주전형 261명(25.36 %)
	[4]	없다 110명(10.69 %)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문항에 대해 학생부교과전형(29.93%) > 실기위주전형(34.01%) > 수능위주전형(25.36%) 순으로 답변하였다. 없다는 응답도 10.69%였다. 본교의 입학전형 유형 중 사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전형은 수능위주전형이었다. 반면에, 본교의 입학전형 유형 중 사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7.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본교 전형요소 중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전형요소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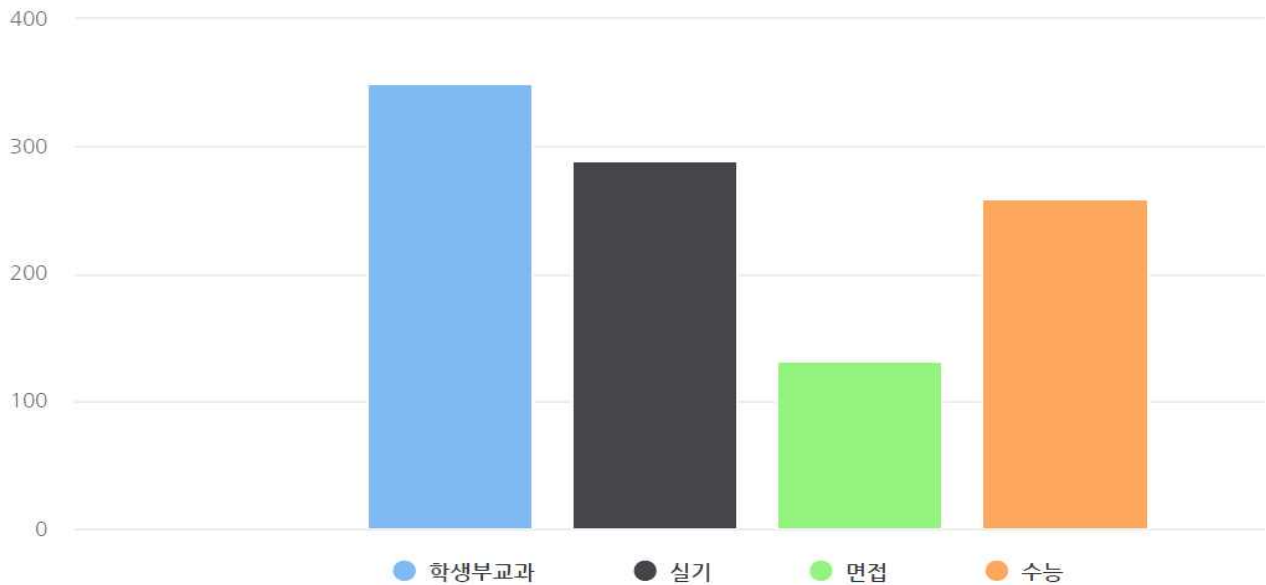


본교 전형요소 중 선행교육 유발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문항20]	[1]	학생부교과	350명(34.01 %)
	[2]	실기	288명(27.99 %)
	[3]	면접	132명(12.83 %)
	[4]	수능	259명(25.17 %)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부교과(34.01%) > 실기(27.99%) > 수능(25.17%) > 면접(11.66%) 순으로 답변하였다.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큰 전형요소는 학생부교과(34.01%)였다.

8.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전형요소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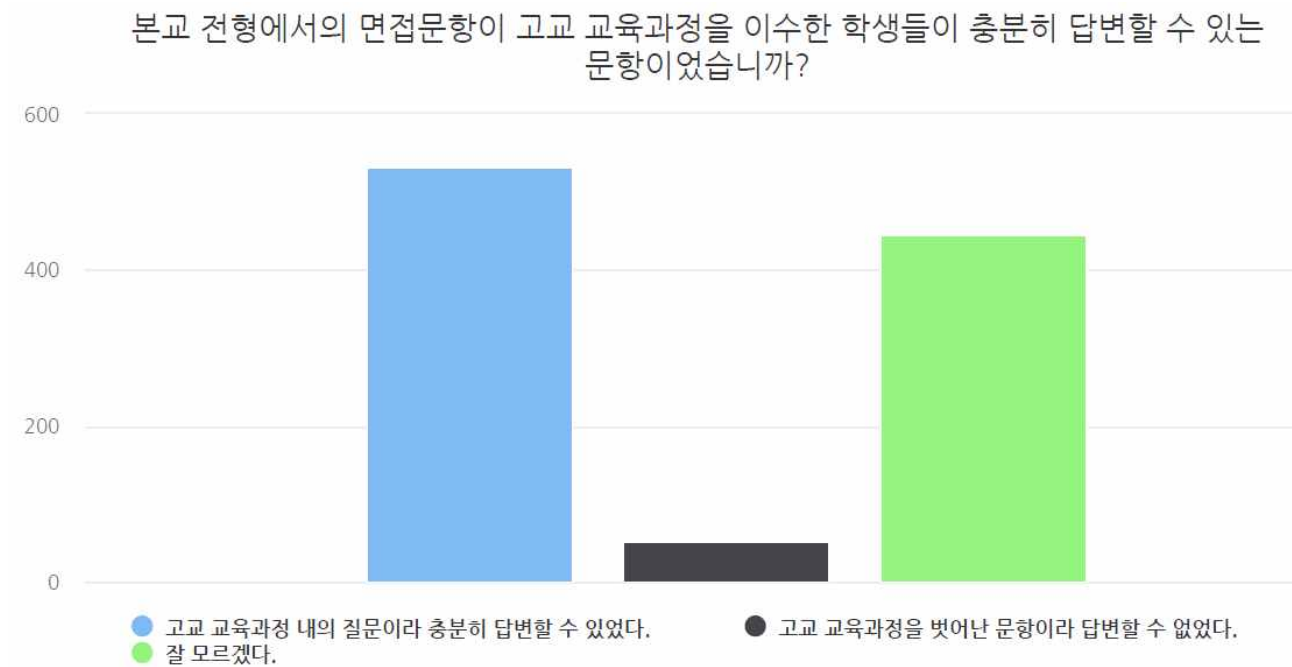
본교 전형요소 중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전형요소입니까?



본교 전형유형 중 사교육 유발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문항21]	[1]	학생부교과 315명(30.61 %)
	[2]	실기 313명(30.42 %)
	[3]	면접 120명(11.66 %)
	[4]	수능 281명(27.31 %)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부교과(30.61%) > 실기(30.42%) > 수능(27.31%) > 면접(11.66%) 순으로 답변하였다.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큰 전형요소는 학생부교과(30.61%), 실기(30.42%), 수능(27.31%) 순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9.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까?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까?		
[문항22]	[1] 고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다.	533명(51.80 %)
	[2]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 답변할 수 없었다.	51명(4.96 %)
	[3] 잘 모르겠다.	445명(43.25 %)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문항으로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과반수 비율인 51.80%에 달하였다. 반면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 답변할 수 없었다’는 답변은 4.96%에 불과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까?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까?			
[문항23]	매우 그렇다		
	[1]	척도형선택	29명(2.82 %)
	[2]	척도형선택	64명(6.22 %)
	[3]	척도형선택	509명(49.47 %)
	[4]	척도형선택	263명(25.56 %)
	[5]	척도형선택	164명(15.94 %)
	매우 그렇지 않다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문항으로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9.04%만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90.96%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V. 요약 및 2024학년도 입학전형 반영 개선 과제

1. 요약 :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 결과

본 연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연구 목적인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면접 문항분석 결과와 선행학습 유발 영향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본교의 특징적인 전형으로 인한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본교의 특징적인 전형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 영향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20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아예 폐지하였기 때문에 본교의 대입전형을 인한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그리고 사교육 유발은 있을 수 없다. 일부 선행학습과 사교육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학생부 중심대입제도로 인한 것이지 본교의 특징적인 전형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

2023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입전형, 특히 학생부 위주 대입전형(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진 영향인 일부 ‘선행학습’ 영향과 ‘사교육’ 유발 가능성은 약하게 있을지언정,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 기인한’ 추가적인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 영향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본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선행학습’ 유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20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아예 폐지하였기 때문에 본교의 대입전형을 인한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그리고 사교육 유발은 있을 수 없다.

둘째, 본교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논술위주전형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형요소와 전형유형 중에 ‘선행학습’ 유발 영향이 가장 많은 논술을 실시하지 않기에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

셋째, 본교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면접을 교과면접 또는 구술고사가 아니라, 인성과 진로적성, 사고력 등을 확인하는 면접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전형요소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중부대학교 면접문항출제위원회에서 선정한 면접문항(표Ⅱ-4)을 분석해 보면, 주로 고등

학교 시기의 활동경험과 고등학교 학생 수준의 사고능력 및 입학 이후 학습의지, 그리고 전공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이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하였다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본교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은 사교육 유발효과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선발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정시보다 수시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기에 정시수능 사교육의 영향조차 최소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과내신 대비 사교육과 수능 대비 사교육을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시에서의 학생 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는 것은 학령기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개별 대학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최근 선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최소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본교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 역시 본교의 입학전형 특성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본교의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운영한 교육과정을 학습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국가가 시행하는 수능의 출제범위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에 중부대학교의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역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이 일부 내신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대학의 공통사항이며 중부대학교 입학전형만의 영향은 아니다.

그렇다면, 2022년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7만 원에서 2022년 41만 원으로 11.8% 증가하였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2021년 48.5만 원에서 2022년 52.4만 원으로 7.9% 상승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9조 원, 중학교가 7.1조 원, 고등학교가 7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1%, 11.6%, 6.5% 상승하였다(교육부, 2023).

이러한 사교육비의 급격한 문제는 개별 대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현재 고등학교 내신 교과와 비교과 전체에 걸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선행교육(선행학습)과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개별 대학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수시 학생부 중심의 선발 비율 자체를 조정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반영을 폐지한다고 해도 교과사교육이 더 증가할 뿐이지 사교육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현행 학생부중심 대입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수시와 정시 비율의 문제라기보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과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2024학년도 입학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 과제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본교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은 본교의 특징적인 전형으로 인한 고등학생들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이 없으며, ‘공교육정상화법’을 분명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이미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였다. 대입전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교과 평가항목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여타 지방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본교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영향이 이전보다 더욱 감소하였다. 여타 내용에서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을 분명하게 준수하는 입학전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영향을 차단하며, ‘공교육정상화법’을 분명하게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부대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행학습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학전형의 간소화, 명료화 방향을 유지한다.

둘째,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한 입학전형방침을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학년도 이후의 입학전형에서도 교과면접·지필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면접은 인성면접을 위주로 시행한다.

넷째, 2023학년도 이후의 입학전형에서도 논술위주전형을 아예 시행하지 않고 실기위주전형도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한다.

다섯째, 특히 어떤 전형에서도 학생부 외에 소논문이나 포트폴리오 등 여타 입학전형에 참고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나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영향을 완전히 차단한다.

여섯째, 중부대학교 입학전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영 교과목 수를 확대하지 않고 반영 교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을 존중한다.

일곱째, 일부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실기위주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한다.

다만, 입학전형의 타당성, 즉 적격자 선발을 위해 모집단위별 교과목 반영 방법을 개선하여 모집단위·전공 학습에 필요한 유관 교과목의 점수를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어느 특정대학에서만 추진하면

그 대학은 학생들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현재 고등학교 내신 교과와 비교과 전체에 걸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선행교육(선행학습)과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개별 대학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수시 학생부 중심의 선발 비율 자체를 조정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반영을 폐지한다고 해도 교과사교육이 더 증가할 뿐이지 사교육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현행 학생부중심 대입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수시와 정시 비율의 문제라기보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과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제1조(목적)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전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②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①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현직 고교 교사, 교직원 등) 4인 내외를 포함하여 총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입학홍보처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5.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본교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학처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입학홍보처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한다.(개정 2020.5.8.)

제5조(방법 및 절차)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한다.
2.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이나 학생부·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형태의 경우에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3. 교과 지식을 직접 묻는 면접은 아니라도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문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는 면접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설문조사 또는 문항 평가,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5. 영향평가 결과 본교의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적용의 배제) 입학전형의 내용이 예체능 실기고사 또는 국가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해당사항 없음

[부록 3] [중부대학교 선행교육(선행학습) 및 사교육 영향 조사] 설문지

[중부대학교 선행교육(선행학습) 및 사교육 영향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본교의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및 사교육에 미친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통계처리 및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학생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중부대학교 입학홍보처

지금부터 설문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련한 설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영향평가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사교육(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문항14	타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선행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항15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확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항16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항17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항18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1 학생부 교과전형 2 실기위주전형 3 수능위주전형 4 없다
문항19	본교 전형유형 중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1 학생부 교과전형 2 실기위주전형 3 수능위주전형 4 없다
문항20	본교 전형유형 중 선행교육 유발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1 학생부교과 2 실기 3 면접 4 수능
문항21	본교 전형유형 중 사교육 유발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1 학생부교과 2 실기 3 면접 4 수능
문항22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까?
	1 고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다. 2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 답변할 수 없었다. 3 잘 모르겠다.
문항23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